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4. 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14 / 2



### 차 한 잔과 명상

법정스님을 불일암에서도 강원도 오두막에서도 뵈는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뵈었다면 더 다양하고 진솔한 모습들을 담았을 것입니다. 행지실에 방문객이 뜸했던 어느 날 스님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불일암과 오두막에 홀로 계시실 때도 이런 모습이셨을 것 같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두툼한 손과 그 앞에 놓인 차 한 잔, 그리고 밀짚모자. 스님의 단출한 삶을 엿보는 듯합니다.

- 사진·글: 일여

### 법정스님 4주기 추모법회 안내

법정스님 4주기 추모법회가 2월 25일(음 1. 26) 오전 11시부터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에서 생전 스님의 뜻에 따라 조촐하고 간소하게 봉행됩니다. 4주기 추모법회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하시어, 뜻 깊고 소중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다경실 유족
처음 마음으로	09	새해의 소망
친진난만	15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책 속의 책	16	구뻘 씨의 행복 여행
스님 평안하소서!!	18	법정스님 가시는 것을 보고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향기나는 우체통	25	거짓말 같은 인생
내 마음속 풍경	28	살, 그 따뜻한 의미
참교육 이야기	32	침묵하는 교사가 정말 훌륭한 교사인가?
샌디에고 암탉	36	이름다운 영혼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8	1,000만 영화가 남긴 질문 - 변호인
한국불교전설	42	나옹 스님의 효심 (이현, 영월암)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6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2월 1일 발행 / 통권 228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8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gilangsa.or.kr> / E-mail : kil@angsa@hanmail.net

## 다경실 유족

글·법 정(法 頂)

다경실(茶經室)은 생전의 운허 스님께서 거쳐하시던 방 이름이다. 26, 7년 전 해인사 관음전에 제실 때부터 스님 방에는 가로로 쓴 ‘다로경권실(茶爐經卷室)’이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경전을 강의하고 번역하면서 차를 드시는 일이 일용사(日用事)이기 때문에 스님의 당호(堂號)로는 적절한 이름이다.

1980년 11월 18일, 스님은 89세로 입적하셨다. 입적 소식을 듣고 광릉 봉선사(奉先寺)로 갔을 때, 한 문도가 내보여준 다경실 유족(遺囑)을 보고, 평소 소탈하고 근엄한 스님의 인품이 그대로 그러나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유족은 한지에 스님의 친필 붓글씨로 토박토박 씌어 있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족

- 신후(身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 문도장(門徒葬)으로 봉선사 화장장(火葬場)에서 다비하라.
- 초종법절(初終凡節)은 극히 검약하게 하라.
- 화환(花環) 금반(錦輓)을 사절하라.
- 습골시(拾骨時)에 사리(舍利)를 주우려 하지 말라.
- 대종사(大宗師)라 칭하지 말고 법사(法師)라고 쓰라.
- 사십구재(四十九齋)도 간소하게 하라.
- 소장된 <고려대장경>, <한글대장경>, <회엄경>은 봉선사에 납부하라.
- 마음 속이는 중 노릇을 하지 말라.
- 문도 간에 화목하고 파별을 짓지

말라.

- 문집(文集)을 간행하지 말라.

-1972년 1월 9일 운허 축누(囑累)

문도들에게

유족은 이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스님의 이름자 밑에 이운허(李耘虛)라고 새겨진 등근 인장까지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족은 스님이 입적하시기 8년 전에 미리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매사에 준비성이 많은 성격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한 인간의 생애는 육신의 소멸과 함께 끝나는 것이지만, 그 존재 의미는 육신과 같이 끝나지 않고 사후에 까지도 이어진다.

우리들이 주변에서 보고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극성스럽고 철면피한 제자들의 망동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일반을 현혹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전의 사람 됨됨이며 그 처신을 뻥히 알고 있는 터인데도 사후에 갑자기 추켜세우며 우상화하는 일이 종단 일각에서 자

행되는 작금(昨今)의 실정이다. 이를 개탄해 마지않던 스님이시라 당신 사후의 일을 행어나 문도들이 그릇되게 할까 봐 미리부터 당부의 말씀 남기신 것이다.

스님이 우리 불교계에 끼친 영향과 공덕을 생각하면 마땅히 종단장(宗團葬)을 치러야 했다. 최소한 역경원장(譯經院葬)으로라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스님은 열 가지로 신후의 일을 부탁하면서, 맨 첫째로 문도장으로 조촐히 치를 것을 말씀하셨다. 과시하는 것을 수행자의 분수 바깥 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게 된 것이다. 화환이나 울긋불긋한 만장도 수행자의 장례식에는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검소하고 절약해서 하라는 것이다.

한사람의 가치 평가는 죽은 후 얼마나 호화롭게 장례를 지내느냐에 달려 있지 않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가 생존시에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이웃에게 어

편 영향을 미쳤느냐로써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수행자는 살아 있을 때도 수행자다워야 하지만 죽은 후에까지도 수행자답게 뒤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스님은 다비를 마친 후 타고 남은 뼈를 주울 때 행여 사리를 주우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일체의 상(相)과 자취에서 벗어나고자 한 염원에서였으리라. 사리가 나오면 탐이나 부도를 조성하는 일로써 시은(施恩)을 또 지게 될 것이고 주위를 번거롭게 할 것을 경계하신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자취 없이 왔다가 또한 자취 없이 가는 것이 진짜 수행자의 본분임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한다. 비싼 세금 내면서 살아가기에도 팍팍한 시주들에게 돈을 거두어 탐이나 부도를 세우는 것이 마치 상좌된 도리처럼 생각하는 일은 출가자의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정재(淨財)가 있다면 굳어버린 돌덩이에 내던져버릴 게 아니라 인재 양성에 생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보다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쁨비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스님께서는 대종사라 부르지 말고 법사로 부르라고 하셨다.

평생을 겸허하게 살아오신 스님다운 주장이다. 요즘 스님들의 칭호는, 특히 사후에 대해서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나 대종사요, 대선사로 통한다. 크고 작은 것이 어디 그 칭호에 달렸단 말인가. 실속이 큰 것은 크다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큰 법이고, 실속이 없는 것은 크다고 아무리 크다고 외쳐 봤자 결코 커질 수 없다. 장미꽃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장미꽃은 역시 장미꽃이다. 이름을 달리 할지라도 그 꽃 모양과 향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분수 밖 호칭은 그만큼 작은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서 남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불교 교단의 생활 규범이 담긴 율장(律藏)을 보더라도 화상(和尚)이나 아사리(阿闍梨)를 쓰고 있다. 중국에서도 임제 화상, 조주 화상이라고 했지 선사(禪師)란 호칭은 당나라 중종(中宗) 때 신수(神授) 스님(606~706)

이 입적하자 대통 선사(大通禪師)라는 시호(諡號)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맨 처음으로 불린 선사 호칭이다. 물론 선정(禪定)에 통달한 고승이란 뜻이다.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설(講說)하고 경전을 번역해온 스승으로서 법사란 호칭이 가장 적합한 부름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삼장법사(三藏法師)란 호칭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스님의 이 같은 유족을 그 문도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요즘 일부 군종(軍宗)에 종사하는, 출가 수행승이 아닌 신자를 가리켜 법사라고 부르는 세태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운허 노사께서는 당신이 소장했던 장서를 그 어떤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사방승물(四方僧物)이 되도록 사중(寺中)에 기증했다.

이것은 초기 불교 교단에서부터 행해져 내려온 승가의 전통이다. 율장에 의하면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면 그가 가졌던 사소한 물건은 병간호를

하던 스님이 차지하고, 큰 물건은 승단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략)

마음 속이는 중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유족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명심해야 할 서릿발 같은 말씀이다. 정직하고 떳떳한 수행자가 되라는 이 당부는 오늘의 혼탁한 승단에 던진 우레와 같은 경종이다.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란 말씀도 있지만, 요즘 어디에서나 도량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수행자의 양심이 마비되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문도들 사이에 화목하고 파벌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종단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던 스님의 간절한 바람에서 형제들끼리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이따금 종단 안팎으로 추태를 드러내고 있는 작태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간곡한 당부시다. 양식이 있는 옛 스님들은 옳고 그름을 가려 파당을 이룰 때는 설사 옳은 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옳은 편에 서는 그 자체가 파당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분율(四分律)〉 권43에 보면 부처님은 코삼비에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때는 저마다 행동을 삼가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참고 견디며, 자비스런 마음으로 법답고 친절한 일이 행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물과 젖이 합한 것처럼 한자리에 화합해서 한 스님의 법을 배우면서 안락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래의 계율에 따라 머리를 깎고 출가한 사문이니 아닌가.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며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한다. 부디 다투지 말라. 이 이상 화합을 깨뜨리지 말라.”

끝으로 노사는 문집 간행을 막고 있다. 평소 글을 많이 다루어 오신 스님으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이 또한 수궁이 간다. 스님은 부처님의 경전을 번역 소개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한 것이다. 개인의 생각을 드러낼 글 같은 것은 대수로운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살아서는 글 한 줄 안 쓰던 분이데 죽은 후에 제자들의 손에 의해 잇따라 저서가 나와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이 더러 있었다. 물론 종단 일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노사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행여 노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문집 간행을 굳이 제지한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운허 노사의 유족은 비단 그 문도들에게만 수지(受持)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 살아 있고 앞으로 죽을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간절한 유족이 아닐 수 없다.

그날 봉선사 화장장에서 다비의 연기가 늦가을 하늘로 피어오른 순간, 노사의 육성 녹음이 절 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면서 나는 생사의 갈림길 같은 것을 절감했었다.

이제는 제삼인칭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머나먼 세상. 우리도 언젠가는 어김없이 이 길을 간다. 1982

- 산방한담 중에서

## 새해의 소망

글 • 덕 운(德耘)

우리가 부모님을 인연으로 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 세상을 나올 때부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형제와 이 사회 그리고 수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 이웃을 위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은 그 자신과 사회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내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고마움을 이웃들에게 은혜로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한 세상, 한 시대를 살면서도 만날 수 있는 인연이란 많지 않습니다. 다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도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야기 하고 듣는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마운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무언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기도가 되

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정화(淨化)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기 정화는 참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금생도 금생이지만 전생에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탓으로 무량겁을 두고 한량없는 허물을 지어 왔습니다. 이제 뉘우쳐 참회하오니 다시는 허물을 짓지 않고 언제까지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이러한 참회는 목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참회는 율림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간절한 마음이 전제되어야만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참회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이루어지

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공을 들인 만큼 나 자신과 이웃에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는 침묵이 뒤따라주어야 합니다. 침묵이 받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불필요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법당에서 나와 뒷방에 모여서 잡된 일들로 떠드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당에서도 그리고 기도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으면 모처럼 기도해서 생긴 정기(精氣)가 세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 기간에는 고요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마음속에서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것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해본 경험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언과 침묵으로 일관할 때 비로소 어떤 진리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나옵니다. 또 유명하고 큰 기도처에 가야만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거롭고 분주한 곳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맑고 청정한 도량이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만 극락세계가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청정해지면 그곳이 바로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법당이나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걸음걸음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기도하는 마음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절과 성당이 아니더라도 내 집과 방이 바로 법당이고 성

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한결같이 곧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젊을 때 수행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업을 조금씩 맑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 현실의 삶이 조금 고달프고 팍팍하더라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업이 정화되고 신앙의 꽃이 피어나며 깨달음의 열매가 영글어 갑니다. 결국 기도는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 즉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맑히는 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각자가 나름의 원을 세우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루하루 실천해 가야 합니다.

卽時現今 更無時節(즉시현금 갱무 시절)이라.

이것을 해석하면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유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하십시오. ‘먼 훗날 재산이 모이고 직위가 높아졌을 때 행복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은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고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 눈을 뜨면서 살아 있음을 자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하며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것이 우리 생애 얼마나 귀중한가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하루가 어제 목숨을 마친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소중한 하루인 것입니다.

이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과 미래 그리고 내생을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달력을 맞이하는 갑오년 첫날입니다.

예전에 제가 법정 어른스님의 책 「영혼의 모음」이라는 책을 읽던 중, 신묘년을 맞으며 쓰신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이라는 글이 마음에 와 닿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를 벽에는 묵은 달력이 떼어지고 새 달력이 걸려 있다.

이렇게 또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선 것인가.

사실은 세월이 오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새해가 돋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들 생활에 어떤 이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저 무심할 수만도 없다. 오늘이 어제의 지속인 동시에 내일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 일기장을 펼쳐듯이 그것이 비록 부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해 아침이면 우리들의 가슴이란 소망을 펼쳐보게 된다.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같은 인간끼리 총부리를 마주대고 아수처럼 물고 뜯는 전쟁놀이에서 그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서로 할퀴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싶다. 우리는 증오를 나누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우리들 속마음에서 저절로 울려 나왔으

면 싶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이국 병사들이 철수를 하건 감군을 하건 거래의 자존심을 내동댕이쳐 가면서 애걸복걸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 좋겠다. 기술 문명의 틈바구니에서 시들어 가는 인간의 영역이 새롭게 움텄으면 좋겠다. 물량의 집적만이 인간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제, 밖으로 밖으로만 행하던 우리들의 시선이 안으로도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소음과 광란에 젖은 우리들의 귀를 안으로 돌려 인간의 가장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그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분수를 헤아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슬기롭게 가늠했으면 싶다.

새해에는 그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 뒤바뀐 가치의식이 제자리로 회귀했으면 좋겠다.

이웃이야 어떻게 되건 아랑곳없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서로 의지해 함께 살고 있는 인

간 가족임을 본질적으로 맺어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싶다. 한편에서는 험벗고 굶주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비만해진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골프채를 비껴드는 이런 비정상런 단층(斷層)이 말끔히 가셨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제발 눈을 떴으면 좋겠다. 날로 치솟아 비대해지고 있는 도시의 외곽에는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살고 있는 인간 이하의 존락이 있다는 사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제발 정신 차려 주었으면 좋겠다.

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우리 모두가 새해 초하루 아침의 달력처럼 싱싱하고 순수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상이 스님께서 쓰신 “새해에는 눈을 떴으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저도 같이 희망해봅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보듬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집안이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매일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 불기 2557년 12월 초하루 법문  
(2014년 1월 1일)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 유가봉사(월 1회)  
고등학생 봉사자 모집중  
문의: 사무국(☎02-741-4696)

#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맑은 만남(淸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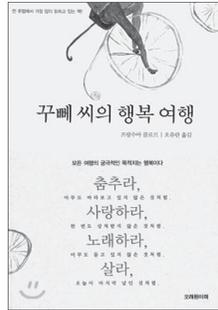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그 사람 아담고 선하고 훌륭하길  
(무척나쁜 말이 아담다는 말)

말하는 대로

## 꾸삐 씨의 행복 여행

엣그제 행복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실제로는 불행하지 않은데도 불행하다 여기는 환자들을 날마다 대해야 하는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프랑수아 틀로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실화 소설입니다.  
(일기일회 중에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풍요로우면서도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저자의 분신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이름난 의사였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상담으로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는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알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난 그의 이야기는 마

치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에 나섰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중국, 아프리카, 미국 등지를 다니며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행복의 비결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훈을 얻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첩에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난 덕에 그의 수첩에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씩 기록되어 갑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행복의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2.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3.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4.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5.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6.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7.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8.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9.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10.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11.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12. 행복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의사는 여행을 마무리하며 노스님을 만나 산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겪어 온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이를 목

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항상 지나온 과거나 미래 쪽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꾸삐는 자신을 찾아오는,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글귀가 적힌 카드를 선물하기를 좋아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 법정스님 가시는 것을 보고

글 • 남학현(회원)

눈물이 났다 사진을 보고,  
베스트셀러들, 길상사 회주, 맑고  
향기롭게, 그러면서도 홀로 산중 생  
활, 다양한 면모 속에 무소유.

불교계의 스타이신 스님이 관도 없  
이 꽃 하나 없이 평상 위에 그냥 붉은  
천을 덮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눈  
물이 났다.

허망하다!

우리 중생들이 기원하던, 꿈꿔오  
던, 선망하던 생활을 해오시던 분이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니,

새삼 허망하다! 나에게도 곧 다가  
올 그 순간…….

인생, 백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허  
망하다.

세상이라는 집이라는 그 공간이 허  
망하다.

가족, 친구, 이웃 사람이라는 그 인  
연이 허망하다.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행복이라  
는 그 생각도 허망하다.

알면서도 모두 알면서도 우리는 또  
구하고 집착하며 안달하고 있다.

허망한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  
문이다.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본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있지 않은 것을 사람이 감각  
기관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며

세상을 시간을 공간을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환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  
문이다.

환인데도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전생이나 어릴 적부터 주옥 계속해  
왔던 습관과 망상 때문이다.

세포 덩어리인 몸뚱이가 나인 줄,  
생각들의 모음인 마음을 나인 줄로  
알기 때문이다.

곧 벗어버릴 세포 덩어리, 60조의  
세포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는  
몸뚱이. 감각 기관이 만들어내는 환  
의 세상.

그 위에 생각들로 또 덧칠을 하며  
감정을 만드는 환의 환 세상.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라. 그냥 버  
려둬라!

하지만 그 만들어낼 줄 아는 그놈.  
시간 공간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놈.  
환의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아  
는 그놈.

그놈은 모든 것을 만드는 무한이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요,

시공을 앞선 그 자리요, 탄생과 죽

음이 없는 자리요, 모두가 하나인 자  
리이다.

또한 똑똑하고 빈 그 자리가 바로  
환의 사물이요 느낌이니, 실제와 환  
이 하나 되는 자리이다.

그냥 그대로 그 행동이 바로 나의  
본성이요, 금반지가 반지이면서 동시  
에 금인 것이다.

법정스님은 그 육체를 굴리면서도  
바로 무한이고 생사가 없으며,

법정스님은 육체를 버리고 가신듯  
하지만 실재는 가신 것이 아닌 것이  
다.

법정스님은 나와 다른 것처럼 보이  
지만 실재는 나와 하나인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 항상 나로서 존재  
하는 것이다.

- '그대와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에서 발췌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찰, 법정스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맑고 향기롭게 근 본도량 길상사에는 종교를 넘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쉬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영각 뒷마루에 앉아 길상사 경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서울 도심 한복판이란 사실을 깜빡 잊게 합니다.

진영각이 개원된 후 많은 분들이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에 공감하며 뒷마루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소원과 다짐 그리고 반성의 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많았으며 단어로는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욕심' '비움' '행복' 등 이었습니다. 4주기 추모법회를 맞이하며 스님께 전합니다.

스님! 80년 인생동안 남기신 것이라곤 범복과 모소리가 헤진 밀짚모자와 몇 자루의 연필…….

평생을 집필해온 책들.

아마 스님은 이것마저도 남기고 가는 것에 탐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처음으로 스님을 면발치에서나마 뵈었습니다.

뒷마루에 앉아 맑고 향기롭게라는 책을 읽었지요.

〈만남〉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침묵의 방에서 10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질문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스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봄을 알리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의 첫 만남은 스님입니다.

2013년 3월

스님. 잘 뵈고 갑니다!

스님. 꿈이 흐려지는 것이 슬픈,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이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꿈을 지킬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중인데, 조금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만큼 이루고, 보는 만큼 가지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먼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스님!

요즘 들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덜 아프셨을 때 잘 해드려야 했는데, 당시에는 아픈 것이 일상이니 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지나쳤습니다.

조금 덜 아팠을 때 치료를 더 잘 해드릴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지금 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니,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스님께서도 많이 아프셨겠지요?

그 고통을 말로 표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셨던 모습에 저희는 '법정스님이라 역시 이겨내시

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도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 간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2013년 5월

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제 욕심을 버리려 합니다.

제 부모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 스스로 행복해지려 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겠지만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깨달았습니다.

2013년 6월

스님.

저는 천주교신자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옵니다.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는 나뭇잎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면서…….

스님이 쓰신 책들은 세계 큰 위안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감사와 기도 속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에겐 30년 동안 애써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좌절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전 알 수 없습니다.

이젠 포기해야 하나, 힘이 되는 한 끝까지 도전해야 하나……?

이젠 내려놓아야 할지, 내 남은 에너지를 뿜어내야 할지……. 올바른 선택을 모릅니다.

2013년 7월

스님!

작년 7월, 갑작스럽게 저는 암환자가 되었습니다.

20대인 제게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근본적인 주요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되짚어보게 되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올 2월, 무서운 항암치료가 끝났고, 그 후 33번의 방사선치료를 겪으며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지만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물질적 욕심보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욕심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보려 합니다.

제가 30대, 40대 그리고 5~60대가 되어도 이곳에 다시 올 수 있길 희망합니다.

2013년 8월

법정스님께

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절을 들르게 된 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 부처님께, 법정스님 처소에 무례히 들렀어요.

아직 10살이지만 매일 염주를 끼고 다니며 고민을 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검은 먹구름이 사라진 날, 깨끗한 정신과 맑은 생각이 드는 날, 길상사를 다시 찾아뵙게요. 그때 제가 많이 변해서 이곳에 온 걸 모를 지도 몰라요.

그러나 명심해 주세요. 제 마음은 기억한다는 것을…….

2013년 9월

스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 장학금 후원을 받아서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된 지금, 그 때 받았던 고마움을 제가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모이고 모여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3년 10월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님!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향기는 대손손 이어집니다.

스님의 아름다운 삶을 배우고 느끼기 위해 먼 곳 해남에서 왔습니다.

아! 땅 끝 해남은 스님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저도 해남이 고향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스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부끄럽지 않은 생을 마치렵니다.

2013년 11월

12월, 마지막 달에 친지들과 함께 스님의 체취가 남겨진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세속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오직 불법을 연구하고 후세에 길이 전할 교훈을 주셨습니다. 스님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지만, 스님께서 남기신 진리는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고 이 조국을 맑고 향기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금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훌륭한 공무원, 모범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2013년 12월

스님.

가장 힘들었을 당시.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으로 다시 치유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제 곁에서 손잡아주던 소중한 친구와 처음으로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족하고 모르는 것들 투성이에 늘 울지만, 스님! 다시 한 번 사람들과 섞여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속에 무소유 새기며, 예쁜 마음만 가득하게 살겠습니다.

노력할게요. 2014년 1월

\*사진 :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사진공약집 '날마다 새롭게' 중에서

## 거짓말 같은 인생

글 • 김창수(회원)

거짓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노총각입니다.

제가 왜 저의 인생을 거짓말 같다고 하는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선천성 골수섬유증, 골화석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누나와 동생,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고생하시는 어머니, 치매에 걸려 고생하시는 할머니와 경남 의령의 산골마을에서 농사지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4명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실질적인 가장인 저는 부족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마흔 셋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1년에 8천~1억 정도 소요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혼자 살기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나 삼류 소설에 나올법한 설정이지요? 저도 예전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같은 인생이 제 인생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내일은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가장 거짓말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2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동생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고, 성공확률 10%도 안 되는 골수이식을 선택했습

니다. 저는 골수이식 수술비를 벌기 위해 2003년부터 2년 동안 리비아에서 근무하여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너무 낮아 결국, 골수이식은 못했습니다. 그 후 병원을 오가며 수혈을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버텨나가는 것이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011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동생은 어머니의 골수(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습니다. 하지만 골수이식은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은 매주 수혈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골수이식 수술 당시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동생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으로 살아가는 동생의 투병기에 비하면 할머니, 어머니, 누나의 병세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4명의 아픈 가족이 오늘 하루 살아가서 함께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

루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세상에 나누고자 지금까지 92회의 헌혈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홍보위원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간이 나는 데로 무조건 헌혈의 집에서 길거리 헌혈 홍보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 하루 살아서 함께 숨 쉬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늘어나는 빚이 점점 더 저를 움아매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내기금 대출, 퇴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금 담보대출 등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빚은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2억 원 남짓한 빚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16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2013년 12월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두렵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생각을 벗는다는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퇴직금으로 빚을 청산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빚 없이 살아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2014년,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까지 벗어 던지고 도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으려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까지도 거짓말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거짓말 같은 인생이 펼쳐질까요?

거짓말 같은 인생의 거짓말 같은 도전!

그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저의 발걸

음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는 숫자로 가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능하다.

가지고 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하고

가지고 있음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적게 가져도 나눌 수 있다면 그 넉넉한 마음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 김창수 시집  
'생각을 벗어라' 중에서

김창수 회원은 진인선원, 모희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홍보위원으로 매주 길거리 헌혈홍보 봉사활동과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헌혈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가 문학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문학에서 말하는 순수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애당초 정해진 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없는 인생이기에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삶, 그 따뜻한 의미

글 • 이정숙(수필가)

이 아이들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 난데없이 맡겨진 두 아이들과 나 자신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다.

“우리 애들 좀 맡아줘.”

죽음 앞에 선 그녀의 말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마고 덤석 받아들인 아이들.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발 벗고 나서 그들을 도왔지만 이건 경우가 달랐다. 죽는 날까지 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일이다.

말기 암 환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살 수 없을 거라는 통보를 받은 다음 나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이제 영영 길이 없다는데 그 정도도 못할까. 2박 3일 일정으로 그녀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지난 일

을 들춰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내게 했던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여행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남게 될 두 아들을 내게 부탁했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 우리 애들 알잖아?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딱히 누굴 따르지도 않아.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렇게 못난 아이들이지만 셋별 엄마라면 우리 애들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녀는 친척들이고 형제들이고 모두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만한 데가 없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할게요.” 반듯하게 잘 자라 걱정할 게 없어

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았다.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냉혹한 엄마 치마폭을 잡고 징징대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컸지. 이젠 내가 밥 해먹이지 않아도 될 만큼. 하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다. 쉽게 고칠 수 없는 인성이나 생활습관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길러내지 못했다. 두 아들은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몰랐다.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까지도 남처럼 대했다.

그녀는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보다 치킨이나 피자 등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다. 두 아들 모두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걸 알면서도 건강에 좋은 것을 만들어 먹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녀가 돈을 쫓으며 사는 동안 아이들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갔고 생활은 갈수록 뒤죽

박죽이었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 사람과 관계 맺는 일, 자기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교육된 게 없다는 걸 나는 너무나도 훤히 알고 있었다.

살가운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였을까? 그들은 엄마가 투병하는 동안, 한 번도 자진해서 엄마를 보러 온 적이 없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병원에 오거나 엄마가 성화를 대야 뼈죽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는 돈을 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누워있는 동안도 그녀는 아이들이 원하는 돈을 아낌없이 이체시켜주었다.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정신 무장을 시켜라. 달라는 대로 돈 주는 일은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다. 시시때때로 충고해도 소용없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성을 뜯어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도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삶은 그 뿌리가 부모와 맞닿아 있었다. 무능하고 술꾼이었던 아버지는

결핍하면 어머니를 때렸다. 열여섯에 엄마가 된 친정어머니는 자식들이 원수였다. 배고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어머니의 독설과 저주였다. 나가 뉘져라. 나가 뉘져라. 그녀는 지독한 가난과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두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굳센 믿음을 갖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스물여섯,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어렵지만 그럭저럭 안정이 된 것 같은 그녀의 인생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왔다. 결혼 6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상, 다섯 살 된 아이들과 큰 빚을 남긴 채.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제법 큰 돈이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이 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남의 이름으로 분산 투자

했다.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돈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제 때 이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정해진 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얽히지 않은 곳이 없었고 가까운 이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죽는 날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어려웠던 시절, 가까이서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내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여러 번 배신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탐욕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가난에 찌들려 살았던 유년의 아픔이, 죽음과 마주 선 그 순간까지도 그녀를 묶고 있었던 것일까?

어느 날,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몫을 깨끗이 포기하면서 그녀를 잘라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꿈에 서라도 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녀와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놓지 않았다. 결

국 한 번만 얼굴을 보여 달라며 매달리는 그녀를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시간은 더 빠르게 가는 것일까? 훌쩍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그녀는 찾아오는 이 없는 병실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과 두 아이들을 내게 맡긴 채,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아픈 데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이면서 따뜻한 엄마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사랑이라면 가능하리라. 퐁퐁 언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으리라.

빼만 앙상한 두 아이들을 볼 때면 목구멍 가득 눈물이 차오른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허리, 새까맣고 깡마른 얼굴, 구부정한 어깨. 밤 새 게임을 하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을 자느라 먹는 일에는 도통 무관심한 아이들을 어찌해야 하나. 가슴에 품어주기만 해도 귀찮은 아이들이라면

**많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월간 많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많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많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모임으로, '월간 많고 향기롭게'를 발간하여 회원을 비롯하여 교도소, 병원, 군법당, 복지단체등에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모임의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지혜의 글을 보시기 편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침묵하는 교사가 정말 훌륭한 교사인가?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선생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다니, 세상 말세야…….’  
 옳은 말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교사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좋기만 한 일일까?

교육부가 불량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다 실패로 끝났다. 한 페이지에 평균 2.6건의 오류가 있는 교과서……. 전체로 따지면 교과서 한 권에 무려 719건이라는 오류가 발견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이런 교과서로 말없이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 게 옳

을까? 아니면 데모라도 해서 옳은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옳을까? 교학사 교과서 얘기다. 도대체 교학사 교과서는 어떤 책일까?

친일파의 추악한 과거사를 찬양,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무장독립투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깎아 내리고 일제의 만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책. 이런 책이 교학사가 만든 교과서다. 이런 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했다면 교사들은 침묵하는 게 옳을까?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다. 과거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친일사관 학자들이 쓴 교과서였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

의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항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순종하는 게 옳은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주권을 훔친 정권을 민주국가라고 가르치라는 데, 광주시민을 백주에 학살한 정권을 민주정부라고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데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저항 하는 게 옳은가? 식민지시대 일제가 조선에 학교를 세운 이유는 우리백성들을 눈 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기르고자 했던 인간은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아니라 식민지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비판능력을 제거한 인간, 순종하는 인간, 가난을 운명으로 아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정권은 어땠을까?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이라는 세계역사상 유래 없는 악법을 만들어 그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앞세

워 주민제도(?)에 나서고 언론은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이때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악법이라고 가르쳐야 할까? 아니면 시험문제만 열심히 풀어주는 게 옳은 일일까? 학생들에게 그런 건 몰라도 된다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옳을까?

교사들이 시사교육을 하면 사람들은 ‘교사가 공부는 안 가르치고?’한다. 그 공부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험문제 풀이? 학급에서 몇 등을 하도록 점수를 올려주는 것? 제자를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문제 풀이만 하고 있으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성적을 매기고 일류대학 입학한 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지식위주의 공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학교는 학교가 할 일, 즉 교

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 근본적인 책무를 안 하니까 하는 말이다. 진짜 공부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남의 불행을 보면 불쌍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걸 알도록 하는 게 교육이다. 그게 시험문제풀이보다 소중한 게 아닌가?

민주주의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주인의식, 민주의식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가능성을 찾아주지 못하면서, 시비를 가리는 일에는 침묵하라면서 교육부가 승인해 준 교과서만 죽도록 암기시켜 점수 몇 점 올려주는 게 더 급한 일일까? 더구나 불량교과서를 배우라는데 저항하는 학생을 불량학생이라며 징계하는 일이 옳을까?

학생은 공부나 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폭력. 그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자식 사랑이 아닐까?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식을 위해 사시는 우리 부모들,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길ियो, 사랑일까?

‘참아야 해!, 공부나 열심히 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해!, 백점 받아야 해!, 일등 해야 해! 다른 학생들은 다 잘 견디잖아? 욕바지르고 짓밟고 무시하고 이겨야 산다는 냉혹한 논리를 심어주는 체화시키는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육이라는 가면으로 어른들이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반교육이 학교인권조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방해한다면서, 이미 법으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이 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 해 놓았

다. ‘인권? 인권이 밥 먹여줘? 학생들이 인권 찾고 뭐 찾고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해?’ 정말 그럴까? 인권이 다르고 공부가 다를까?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 머릿속에 암기한 몇 가지 지식이 들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인권이란 교육 그 자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육이듯이 인권이란 사람을 인권적인 존재로 키우는 일이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지원청이 있다. 교육부며 시·도교육청이 있고,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들이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이 이 모양일까? 왜 학교가 무너졌다고 야단들일까?

너도 열심히만 하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검사도 될 수 있어! 사당오락이라고 하잖아? 4시간만 자야해, 다섯 시간을 자면 떨어져, 선행학습이든 고액과외든 닥치는 대로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해! 과정 따위는 소용

없어, 결과가 말하는 거야! 우리 때도 그랬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교육자나 학부모들이 벌이고 있는 이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옳은 일인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게 교육이 맞는지……. 부모로서 또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는지를……. 이런 현실을 두고 침묵하는 교사가 정말 훌륭한 교사인지를…….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게 좋은 교사인지를…….

함량미달 교회사교과서 채택률이 0%다.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정교과서제로 가겠다는, 친일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가르치겠다는 교육부의 시도를 못 본 채 하는 게 옳을까? 교사가 집단행동도 하지 않고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는 있는 날은 언제일까?

## 아름다운 영혼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제가 고국을 떠날 무렵이었습니다. 체육관 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를 흔들고 표현의 자유가 마구 억압을 받던 해였습니다. 1987년 1월이던가요. 서울대에 다니던 박종철 학생이 경찰의 잔인한 물고문으로 죽었다는 조작극이 밝혀지던 날의 슬픔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슴 조이며 저도 국민들과 함께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정의로운 신부님들과 의사 선생님이 진실을 밝혀주던 용기에 한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육과 문화계의 아까운 인재들이 서울의 도심지 콘크리트 건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었지요.

김추기경님이 지키던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조국의 자랑스러운 성지였습니다. 명동성당으로 도피한 애국청년들을 보면 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발족한 '정의구현 사제단'이 나라를 걱정하던 지난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불의에 맞서 대응한 말씀들은 역대의 부끄러운 정치인들의 양심을 되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 들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용기 있던 양심적 담화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올바른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약자의 편에서 사랑을 나누어주신 따뜻한 한마디는

종교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부조리와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국을 걱정하시며 민주화를 부르짖던 학생들이 죽음을 당할 때마다 친자식처럼 감싸며 고뇌하셨습니다.

1969년 우리나라의 첫 추기경으로 임명을 받을 때도 비신자인 저는 추기경님을 뵈지 못했지만 그런 까닭으로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열심히 사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안아주던 지도자, 자애로운 아버지, 형님, 오라버니셨기에 멀리 가시는 길이 이리도 애달프습니다. 지난 2008년 세종문화회관 동성중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전 사회에서 그린 자화상 '바보야도 우리를 많이 웃겼지만 '겸손하게 살라'는 깊은 뜻으로 저는 깨우쳤습니다. 이해인 수녀님과 같은 병원에서 소년처럼 농담하셨다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종교를 앞세워 독선자로 군림하지

않고 유교와 불교의 피가 당신의 가슴에도 흐른다며 폭 넓은 종교지도자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직자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야하는지 슬프기만 합니다.

'내 탓이요' 운동으로 마음을 닦는 길을 인도하셨고 긍정적인 사고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며 마지막 남기신 말씀들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직도 저는 용서하는 일에 구차하고 미련스럽습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1998년 은퇴 후에도 봉사하시며 당신의 육신까지 베풀고 떠나시는 일생에 고개를 숙입니다. 타인의 몸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배우겠습니다.

한결같이 자애로운 김 추기경님의 미소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었습니다. 반만년을 내려 온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지키며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셨으니 부디 영혼만은 우리 조국을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 1,000만 영화가 남긴 질문 - 변호인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이제 1,000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글이 '맑고 향기롭게'에 실려 받아보실 즈음이면 분명 관객 수는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영화를 볼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봤거나 볼 영화이지만 그래도 영화 얘기를 한번쯤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영화이고, 생각하고 얘기해 볼 것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어떤 영화인지 다들 아시겠지요. 바로 영화 <변호인>입니다.

송강호가 주연을 맡은 영화 변호인은 사실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그것은 단지 송강호가 주연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송강호가 맡은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가 상

당 부분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노무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칭송하거나 찬양하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한 이들은 이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부터 영화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화 변호인은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송우석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지나온 1980년대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고문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영화이지만 영화는 매우 자연

스럽게 흘러갑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상고 출신으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송우석은 부동산 열풍을 타고 증가한 등기 사건을 맡으며 부산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학력이 짧고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해 기반이 약한 그는 대신 남들이 하지 않는 부동산과 세금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금세 돈도 벌고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송우석은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의 행복과 변호사로서의 성공 정도입니다. 뉴스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을 보아도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자신이 단골로 가는 돼지국밥집의 아들인 진우가 시국사건에 연루되고 돼지국밥집 주인인 어머니 최순애의 간절한 호소로 사건의 변호인을 맡게 되면서 송우석은 달라집니다. 진우가 고문당한 것을 보게 되고, 학생들이 읽었다는 책을 읽으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비

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받게 될 수 있는 기업의 세금 관련 사건을 포기하고 진우가 연루된 사건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건을 조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주인공 송우석의 변화와 변호사 송우석이 재판장에서 펼치는 논리적이고 간절한 변론입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고문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배경인 1981년에는 그렇게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만으로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연행과 구금, 고문이 강제적으로 행해졌고 그것이 위법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있지도 않은 조직, 하지도 않은 일들이 고문을 통해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

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명이 죽기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영화는 진우에게 행해진 고문과, 경찰과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그리고 한통속이 된 재판부와 언론의 행태를 통해 당시가 얼마나 부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시대였는지를 증언합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 이렇게 많은 수의 관객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지금이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같은 잘못된 일에는 눈 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속물처럼 살아가던 변호사 송우석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이 공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영화를 부담 없게 만드는 것은 영화의 자연스럽고 절제된 연출입니다. 감독

은 처음 해보는 영화연출임에도 넘치지 않고 적절한 선을 지키며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영화에서는 과도한 장면들이 거의 없습니다. 줄거리만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뻘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지만 감독의 연출과 배우들의 호연은 매 장면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영화의 주연을 맡은 송강호의 연기는 눈부십니다. 이미 오래 전에 연기력을 인정받은 한국의 대표 배우인 송강호는 영화의 초반부에는 속물적이지만 선한 송우석을 코믹하게 보여주고,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열정적이고 치밀한 변호사 송우석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줍니다. 송강호의 연기가 놀라운 것은 매 순간 송우석의 내면을 상대 배우와의 완벽한 호흡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기만을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고 매 순간 상대 배우와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연기를 위치지음으로써 늘 실제의 순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명

함을 돌리며 자신을 알릴 때나, 국밥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갈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가족들을 챙길 때, 친구와 다룰 때, 그리고 열변을 토하며 변호할 때 모두 그의 연기는 한 치의 넘침도 한 치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정의롭지만 기계적이지 않고, 선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인간의 내면이 송강호의 연기를 통해 재현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변호사 송우석의 변화 역시 자연스럽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송강호의 연기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단순해질 수 있는 인물을 한 인간으로 보여주며 몰입하게 하는 그의 연기는 그의 연기 중에서도 가장 돋보입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의 연기 덕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주장을 대놓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장을 담은 영화가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보편타당해지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불평등하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영화의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대리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영화를 더 많은 이들이 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사회는 어디에도 없지만 최소한 역사가 거꾸로 가지는 말아야겠지요. 하지만 2014년과 영화 속 1981년의 거리가 유독 가까워보이는 요즘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나누고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변호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나옹 스님의 효심 <이천.영월암>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지금으로부터 6백여 년 전, 고려의 유명한 스님 나옹화상(법명 회근, 1320~1376)은 춘설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길을 시자도 없이 혼자 걷고 있었다. 지금의 양주땅 회암사에서 설법을 마치고 이천 영월암이 있는 설봉산 기슭을 오르는 스님의 발길은 찌뿌듯한 날씨처럼 무겁기만 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가까이서 울리는 요령소리가 스님의 귓전을 울렸다.

「허, 또 누가 이생을 하직한 계로군.」

자신의 출가 당시 화두였던 사람이 오고가는 생사의 도리를 되뇌이면서 막 산모퉁이를 돌아서려던 나옹 스님은 초라한 장의 행렬과 마주쳤다.

상여는 물론 상주도 없이 놀수고 레한 영감이 요령을 흔들며 상엿소리를 구슬피 메기고, 그 뒤엔 장정 하나가 지계에 관을 메고 무거운 듯 힘겹게 걷고 있었다. 바로 뒤엔 두 명의 장정이 삼과 곡괭이를 들고 따랐다.

행렬은 스님을 보자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허리를 굽혔다.

「누가 갔는데 이처럼 의식도 갖추지 못하고…」

「예, 아랫마을 돌이어머니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거참 안됐구먼. 얼마 전 아들을 잃고 정신이 이상해졌다더니…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마지막 가는 돌이어머니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염불을 하고는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

평소 마을을 지나다 몇 번인가 본 돌이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난 뒤 충격을 받아 남의 집 물건을 예사로 훔치고 자주 마을 사람들과 싸우는 등 포악해졌다.

처음엔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나중엔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가두어야 한다고 하여 한 동안 보이지 않더니 그만 명을 달리하고 만 것이었다.

을씨년스런 날씨에 마음마저 착잡한 스님은 문득 출가 전 자신이 고뇌하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스님이 20살 때였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약속한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비통에 잠긴 나옹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가라는 물음을 어른들께 수없이 되풀이했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벗과의 사별을 인생의 근본문제로 받아들인 나옹은 그 길로 공덕산 요연 스님을 찾아갔다.

「여기 온 것은 무슨 물건이냐?」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왔으나 보려 하여도 볼 수 없고 찾으려 하여도 찾을 수 없나이다. 어떻게 닦아야 하겠나이까?」

이 말에 요연 스님은 나옹의 공부 가 보통 경지가 아님을 알았다.

「나도 너와 같아서 알 수 없으니 다 른 스님께 가서 물어라.」

나옹은 그곳을 떠나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1344년 양주 회암사에서 4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앉아서 용맹정진을 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스님은 더 높은 경지를 체험하기 위해 1347년 중국으로 구법(求法)의 길을 떠났다. 연경 법원사에 도착하여 그 절에 머물고 있던 인도 스님 지공화상을 만나 계오(契悟)했다. 2년간 공부하다 다시 남쪽으로 가서 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 법의(法衣)와 불자(拂子)를 받고 사방을 두루 다니며 선지식을 친견하던 스님은 어느 날 어머니의 타계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정이 솟아

올랐으나 스님은 출가사문의 본분을 내세워 멀리서 왕생극락을 기원할 뿐이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머물자 스님은 너무도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됐다.

그날 밤 스님은 선정에 들어 어머니의 행적을 좇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옹 스님의 어머니 정씨는 뜻밖에도 환생하지 못하고 무주고혼이 되어 중음신으로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자신을 원망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했던 자신의 불효가 한스러웠다.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시길래 구천을 맴돌고 계실까. 혹시 아들의 모습을 못보고 눈감으신 정한이 골수에 맺힌 것인 아닐까?」

스님은 지옥고에 허덕이는 어머니를 제도한 목련존자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천도하기로 결심했다.

나옹 스님은 영월암 법당 뒤 설봉

산 기슭 큰 바위에 모셔진 마애지장보살님 앞에서 어머니 천도 기도를 시작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옥의 한 중생까지도 제도하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어머니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나옹 스님의 독경은 간절했다.

그렇게 기도하기 49일째 되던 날, 나옹 스님은 철야정진에 들어갔다.

새벽녘 아직 동이 뜨기 전, 나옹 스님은 지장보살님의 전신에서 발하는 환한 금빛 광채를 보았다. 그것은 눈부신 자비의 방광이었다.

스님은 놀라서 고개를 들고 지장보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지장보살님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듯했다. 고통받은 지옥 중생 때문에 지옥 문전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다는 지장보살님이 어머니를 천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았다.

「아, 지장보살님께서 내 기도에 감응하시어 눈물로써 현현하고 계시는구나.」

나옹 스님은 기도가 성취되어 기뻐했다.

「어머니, 이제 아들에 대한 섭섭하신 마음을 거두시고 편히 극락에 드십시오.」

기도를 마친 나옹 스님은 선실에 입정하여 이미 천도왕생하신 어머니를 보았다.

그 이후부터 영월암 지장보살님 앞에는 선망 부모의 왕생극락을 빌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려는 기

도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나옹 스님은 영월암에서 14안거를 성만하면서 후학을 제접하고 신도들을 교화했다. 이 마애지장보살상은 1984년 12월 보물 제822호로 지정됐다.

## 2014년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본모임은 생태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매주 수요일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신청은 전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수시 접수받으며, 무경험자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매월 연속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강좌 순서 : 샴푸 ▷ 로션 ▷ 에센스 ▷ 비누

\* 해당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와 본모임의 사정상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길상사 세계일화실(비누는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천연 화장품 유경험자 중에서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학생들을 위해 화장품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 천연화장품 특별강좌 일정 안내

■ 4월 30일 - 한방 녹차 스킨 만들기

■ 10월 29일 - 수분크림 만들기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 회원님! 연말정산 하셨어요?

후원회원님. 지난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는 만큼 돈도 번다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면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간편하게 조회, 출력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요. 또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인터넷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봉사 함께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7지리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주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 전화말벗 봉사자 모집

전화말벗 지원 활동은 결식이웃 후원(밑반찬 지원) 대상자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일주일에 한번이상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한 시간에 전화로 봉사에 참여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2월 봉사자 정기모임은 18일 오후 1시 5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닌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후원계좌 : (새)매표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 결식이웃후원계좌 : (새)매표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3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목요일(6,13,20,27일)/금요일(7,14,21,2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매표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3,10,17,24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9,16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2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역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화요일(18일)/오후 1시/5시/달타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5,12,19,26일(수)오후 1시 30분 (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자수기방만들기강좌/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세계일화실/재료비 본인 부담

### 광주모임 (062-236-3129)

#### 2월 정기 활동 안내

- '공양 나눔 센터'에서 동참해 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활동에 선행을 베풀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 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대구모임 (053-753-8883)

#### 2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룸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운영위원회/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2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봄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 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2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 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 2월 1일 (오후 7시~9시)
- 장소 : 극락전

**정초기도**

경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일 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의 정초10일기도가 봉행됩니다.

- 입재·회향 : 2월 2일~2월 11일
- 장소 : 극락전

**입춘(立春)기도 안내**

- 일정 : 2월 4일
- 일시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2월 8일  
(오후 9시~다음날 새벽 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2월 8일  
(오후 8시 30분~다음날 새벽 3시 50분까지)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호대

**2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15일(토)~16일(일)  
넷째 주말 22일(토)~23일(일)
- 참가비 : 7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동안거 90일 관음기도 일정**

- 입재·회향 : 2013년 11월 17일~2014년 2월 14일
- 장소 : 극락전

**춘계 관음기도 안내**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묘약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추해지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의 빛은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님 염송 속에 부처님께 한 발 더 다가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입재 : 2014년 2월 15일
- 회향 : 2014년 5월 12일

**법정스님 4주기 추모법회**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가신 법정스님의 추모 법회가 있습니다.

- 일정 : 2014년 2월 25일(음력 1월 26일)
- 일시 :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 일정 : 3월 6일 개강 ~ 다음해 1월 졸업
- 학제 : 1년 2학기제
- 응시자격 :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제출 서류 : 길상사 입학원서, 사진 2매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초하루법회	3월 1일, 3월 3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3월 1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3월 8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3월 8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1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3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 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2014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 받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본모임 창립 이후 21년 째(2013년 까지 총483명/총지급액: 약 6억 7,000여만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은 뛰어난 성적이 아니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이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성적은 다소 뒤처지더라도 낙담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주변에 있는지 회원님께서도 돌아보시고 추천해주세요.

- **장학 대상** : 전국 고등학생 (3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학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 ① 추천서 : 추천서 양식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외 추천 사유
    - 학교 장학생 담당자의 확인 기재
    - 학생의 주소, 연락처, 학년, 반 명기
  - ② 학생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본, 초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추천서 접수 마감** : 2014년 3월 22일(토) 우표소인까지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4년 4월 4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공지 참조

